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05
----------	-----

2023년 7월 3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30일, 최유희 의원 발의
2.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2023년 7월 3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유희 의원)

1. 제안이유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은 학교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를 별도 조례로 둘 실익이 적고,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을 교육하기 위해 환경교육 관련 시행계획이 아닌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는바 동 조례의 폐지를

제안함.

##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폐지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최유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805호로 발의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폐지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이 학교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측면에서 별도 조례로 규율할 실익이 적고,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을 위한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2018년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조치와 국내 재활용 체계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관내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를 중심으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폐기물 수거가 장기간 이뤄 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sup>1)</sup> 재활용품의 분리배출과 자원순환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2018년 발생한 재활용품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언론보도를 참조.

① 노컷뉴스(2018.4.6.), “[빅데이터] 쓰레기대란 작년부터 신호있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4950622> [검색일 2023-6-22]

② YTN 라디오(2018.4.12.), “[수도권] 일부 아파트 폐비닐 수거 거부... 중장기적인 대책은?”, [https://www.ytn.co.kr/\\_ln/0103\\_201804121239465437](https://www.ytn.co.kr/_ln/0103_201804121239465437) [검색일 2023-6-22]

③ 한국경제(2018.4.19.), “[단독] 데이터도 없이 '폐기물 대란' 막는다는 정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3926082?sid=102> [검색일 2023-6-22]

-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는 2021년부터 협약당사자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 이<sup>2)</sup> 시행됨에 따라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대한 노력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는 자원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게 하고, 실질적인 자원 재활용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 「서울특별시 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분리배출 교육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였습니다.
- 동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교육(이하 ‘분리배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분리배출 교육 시행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분리배출 교육 시행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사업 위탁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당시 조례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폐기물의 상당량을 재활용하는 모범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낮고, 자원 재활용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공동선언」 발표,<sup>3)</sup> 2020년 6월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중장기(‘20~’ 24년) 발전 계획」 수립<sup>4)</sup> 등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2)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 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3일 협정을 공식적으로 발효했다.

(참고: 외교부, 외교정책 > 환경 > 기후변화·환경 > 기후변화협상, [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검색일 2023-6-22])

3) 서울시 보도자료(2019.9.25.), 세계 석학·전문가 서울서 ‘환경-인간 공존 생태문명 모색’ 국제 컨퍼런스

4) 생태전환교육 중장기(‘20~’24) 발전 계획(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1451, 2020.1.31.)

자원순환 등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의 일환으로서 제정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2023년 현재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배출 교육의 시행과 지원은 생태전환교육의 틀 안에서 전개되고 있고, 관련 사업의 기획과 시행 역시 생태전환교육 계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우선, 서울시교육청의 「2023 생태전환교육 기본 계획」은 추진 근거 중 하나로 동 조례를 언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실천 교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별첨 자료 참조)
-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리배출 교육의 교재 개발이나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은 생태전환교육 프로젝트 활동이나 학교 환경교육의 일환으로서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 조례 제정 이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 운영 현황<sup>5)</sup>**

(단위 : 천원)

연도	시행 계획(사업명)	주요내용	예산액
2021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생태전환교육 자료 개발 및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 대상: 초·중·고 학생 및 교사 (초3~4, 초5~6, 중1~3)</li> <li>• 자료 형태: 책자 3종, PDF 6종(학생용 3종, 교사용 3종)</li> </ul>	71,120
2022	·자원순환 프로젝트 활동 교육자료 개발 및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 대상: 초·중·고 학생 및 교사</li> <li>• 자료 형태: PDF 4종(학생용 2종, 교사용 2종)</li> <li>• 자료 내용: 자원순환 주제의 4차시 내외 프로젝트 활동</li> </ul>	5,540
	·2022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순환 교육자료 제공</li> <li>• 폐휴대폰(본체, 배터리, 충전기 포함) 수거 및 재활용</li> <li>• 우수학교 도서 증정, 환경교육 강사 파견</li> <li>• 폐휴대폰 매각대금 전액 교육청 명의 기부</li> </ul>	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생태전환교육 자료 개발 및 제공(개정 및 증보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 대상: 초·중·고 학생 및 교사 (초1~2, 초3~4, 초5~6, 중1~3)</li> <li>• 자료 형태: 책자 4종, PDF 8종(학생용 4종, 교사용 4종)</li> </ul>	120,220

5)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1081번)(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6749, 2023.5.8.)

연도	시행 계획(사업명)	주요내용	예산액
2023	·2023 생태전환교육 기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 배출 및 자원 순환 실천 교육' 안내</li> <li>· 자원순환 5R 프로젝트</li> <li>· 자원순환 관련 교육자료 등</li> </ul>	0
	·2023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운영(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순환 교육 기회 부여(희망교)</li> <li>· 폐휴대폰(본체, 배터리, 충전기 포함) 수거 및 재활용</li> <li>· 우수학교 도서 증정</li> <li>· 폐휴대폰 매각대금 전액 교육청 명의 기부</li> </ul>	0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분리배출 교육 조례를 학교 환경교육 관련 자치법규와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할 실익이 적은 것으로 사료되고, 동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분리배출 교육 시행에 있어 그 영향은 극히 제한적 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도 분리 배출 교육에 관한 사항은 중학교 ‘환경’ 교과나 고등학교 사회과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와 교양의 ‘생태와 환경’ 과목 등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sup>6)</sup>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교육을 학교 환경교육의 부분으로서 전개하는 것이 개정 시행되는 교육과정에도 합치되는 방향이라 사료됩니다.

[표]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분리배출 교육 관련 내용<sup>7)</sup>

학교급	교과구분	성취기준
초등학교	바른생활	[2바03-04] 공동체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삶의 방식을 찾아 실천한다.
	과학	[6과08-02] 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조사하고, 에너지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는다.
	실과	[6실02-03] 생활자원의 올바른 사용이 가정과 환경에 도움이 됨을 이해하고 재활용, 재사용 등 환경을 고려한 관리 방법을 실천한다.
중학교	선택(환경)	[9환03-02] 신·재생 에너지, 핵발전,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처리 등 에너지 이용 및 자원 순환과 관련된 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을 계획하여 수행하고, 관련된 요소 간의 상호 작용을 분석한다.

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2-33, 2022.12.22.)

학교급	교과구분	성취기준
고등학교	교양과 (생태와 환경)	[12생환04-04] 기후변화 미래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희망하는 미래를 위해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 할지 토의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제안과 사례를 탐구한다.
	사회과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12기지03-04]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기술과 순환경제의 역할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세계의 모습을 제안한다.

- 결론적으로 동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리배출 교육이 중요하다는 제정 취지와 환경교육 내실화 및 자치법규 정비의 차원, 그리고 통합적인 환경교육 법제 구축 측면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참고로 현재 친환경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등이 환경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실천하도록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홍보’에 관해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sup>8)</sup>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가 국정과제<sup>9)</sup> 추진을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로서 RE100과<sup>10)</sup> 탄소세,<sup>11)</sup>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운영 중단 등 국내외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조례 폐지 여부에

7) 위의 자료를 분석하여 다시 정리한 사항임.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 2023.5.30. 발의, 의안번호 제804호)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운영지원 등) 교육감은 학생 등이 학교환경교육을 통한 배움을 실천하고, 친환경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을 의미함.

10) 기업이 직접 발전이나 외부 구매 등을 통해서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포춘 1,000대 기업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나 연간 전력소비량이 100GWh 이상 소비 기업 등이 주요 참여 대상임. (자료: 한국에너지공단(2020.9.), 재생에너지 정책 및 RE100 국내외 동향 참조)

11)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  
관리담당관-8833, 2023.6.8.).<sup>12)</sup>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개념적으로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은 근본적 차이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생태전환교육 조례의 폐지는 과거로 회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집행기관의 입장은? (전병주 위원)
  - 두 개념은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생태전환교육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시스템과 조직 운영의 전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후위기와 전지구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태전환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 일부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으로 환경교육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태전환교육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례 개정이 적절한 근거를 갖고 추진된다고 생각하는지? (전병주 의원)
  - 교육기본법과 국정과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상 보았을 때 생태전환교육이 그 취지에 더 합당하다고 생각함.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 기후위기와 생태전환은 보편적 의제로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함. 더불어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제정된 지 2년에 불과하고 기금 운용 등의 문제는 조례 개정과 의회의 견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생태전환교육은 환경교육보다 진보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폐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전병주 의원)

12)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행정관리담당관-8833, 2023.6.8.) 참조.

○ 기후변화나 탄소중립, 지속가능사회 등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는 충분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 역시 모두가 공감할 것임. 다만,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교육청이 사업 추진에 있어 농촌유학에만 집중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함. 더욱이 17개 시도 교육청 중 9곳이 ‘환경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교육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할 수 없음. (채수지 위원)

-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이 지향하는 가치가 동일한 부분도 많지만, 생태전환교육은 국가·기업의 관계부터 사회 전반의 운영방식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개념이며, 서울시교육청도 비교적 최근 조례에 생태전환교육을 명시하였듯이 타 시도에서도 생태전환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환경교육을 이행해가고 있음을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12명, 찬성 8명, 반대 4명).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